

경북교육 정책·연구 이슈페이퍼

제호: 제2026-04호

발행월: 2026년 07월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발행인: 원장 이상진

작성자: 연구위원 박준형

한 권의 책, 한 번의 대화, 한 사람의 변화

– 경북교육 “교원 인문 인사이트”와 인문학 교육

※ 본고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인성인문학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경북 교원 인문 인사이트 라운드테이블(2026. 7. 1.)에서 주제 강연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요약]

본 연구는 기술 중심 사회의 심화 속에서 부상하는 인문학의 새로운 수요를 재조명하고, Pierre Bourdieu의 장(Field) 이론 및 디지털 라키비움(Digital Larchiveum)의 관점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원 인문 인사이트' 프로그램이 지닌 인문학적·교육적 의의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AI와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및 공적 R&D 예산의 편중으로 인해 인문학의 제도적 위기는 가속화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의 담론이 시사하듯, 기술의 고도화는 역설적으로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감성적 공감 및 해석 능력 등 인문학적 본질의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하에 등장한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은 지식의 단순 전산화를 넘어 인문학의 생산·축적·유통 방식을 재편하며 인문학의 장 내부의 자본과 작동 규칙을 재구성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장의 변화에 대한 공교육 차원의 실천적 응답으로서 '교원 인문 인사이트' 플랫폼을 주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기능적 매개체인 '디지털 라키비움'으로 작동함으로써, 교원을 단순한 지식 소비자가 아닌 의미 생산자이자 기록자로 재위치시킨다. 교원들의 독서와 상호작용은 도서관적 지식 공유, 기록관적 맥락화된 데이터 축적, 그리고 박물관적 교육 기억의 전승 구조와 결합하여 지역 교육 생태계 내부의 집합적 인문 자산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경북교육의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기술 과잉의 시대에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 중심의 교육철학을 지속가능하게 제도화·플랫폼화한 선도적 모형이며, 디지털 전환 시대 인문학 교육의 혁신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실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교원 인문 인사이트, 디지털인문학, 디지털 라키비움, 장 이론(Field Theory), 인문학 교육, 경북교육

I. 들어가며: 인문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 교육은 인공지능, 플랫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지식 전달의 방식뿐 아니라 인간 이해의 방식 자체를 다시 묻는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 활용 역량의 증진만으로는 수업과 생활교육, 관계 형성, 가치 판단, 공동체적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끌어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인문학이 시대적 후경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중심 사회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인간의 의미 세계를 재구성하는 핵심 자원으로 다시 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교육계와 산업계의 상반된 풍경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교육계에서는 진리의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구조에서, 그리고 초중고교의 진로진학과 관련한 현실 속에서 인문학은 실용성과 효율의 논리로 인해 주변화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대학 인문대 지원자 수 감소, 인문학 관련 학과 통폐합, 인문학 연구비 축소와 같은 구조적 변화는 이미 여러 통계와 보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출처: 경북in신문, 유경상 기자(2025. 12. 19.) “엉뚱한 ‘교명’, 국립경국대학교로 바꾸더니, 이젠 ‘인문·문화학’ 말살까지 나서나!”,
<https://www.kb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10>

2023년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일반대 학과 통폐합·신설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에서 통폐합·신설·폐지된 학과는 총 4,108건에 달한다. 공학계열은 같은 기간 820개 학과가 새로 생기는 동안, 인문계열은 76개가 사라지고 50개만 생겼다. 전 계열 중 유일하게 ‘폐가 신설보다 많은 계열’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 오마이뉴스 2026. 3. 20. 채희태 기자 “대학생들의 섬뜩한 ‘장례식’... 한국의 대학은 지금 무얼 하는가”

2026년 공적 R&D가 29조 6천억 원에서 35조 3천억 원으로 5조 7천억 원(19.3%) 증가했지만, 전체 R&D에서 인문사회 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025년)에서 0.93%(2026년)로 축소됐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수치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

· 인문사회계열 석사 200명, 박사 400명 지원·이공계열 석사 2,850명, 박사 2,281명 지원

■ 연구소 지원 예산·인문사회 연구소: 교육부 275개 1,069억 원

· 이공계열 연구소: 교육부 166개 2,024억 원 + 과기부 35,600억 원

■ 주요 국가 공적 R&D 인문사회 분야 비중: 프랑스는 18.6%, 일본은 13.1%, 미국은 11.2%, 독일은 8.3%, 영국은 5.1%, 대한민국 0.93%

- 교수신문 2025. 11. 13. 임호진 기자 “내년 R&D예산 19.3% 늘었지만 인문사회는 0.93%로 줄어”

이에 대해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의 저명한 법철학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인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인문학 교육의 축소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Knowledge is no guarantee of good behavior, but ignorance is a virtual guarantee of bad behavior.” (지식이 선한 행동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무지는 사실상 나쁜 행동을 보장한다.)

그는 또한 인문학 교육의 쇠퇴가 “useful profit makers with no imaginations”(상상력 없는 유용한 이익 창출자들)만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직시하며, 인문학의 위기가 단순한 취업률 문제가 아니라 민주 시민성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 MarthaC. Nussbau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201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36명은 36개의 각기 다른 주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인문학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미래를 조망한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2024)에서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환경의 심화, 학과 구조조정 등을 인문학이 둘러싸인 악화된 환경으로 진단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신한국인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리더들은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에 대한 통찰, 윤리적 판단, 상상력과 해석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혁신이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양 연수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기의 교육 주체가 갖추어야 할 해석 역량과 성찰 역량을 재구성하는 실천적 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더 이상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인간, 정보와 가치, 속도와 성찰 사이를 매개하며 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조직하는 핵심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 인문학은 개인적 독서의 확장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인간 이해와 공공성, 윤리적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을 재배치하는 교육적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 인문학은 그 실천의 형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인문학은 인문학의 연구 및 교육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기존의 학문 경계와 지식 생산 방식을 재편하는 흐름으로 이해되며, 국내에서도 관련 협회, 연구센터, 대학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인문학이 더 이상 전통적 독서와 텍스트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아카이브, 네트워크, 디지털 매체를 통해 지식의 생산·축적·공유 방식을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첫째, 기술 중심 시대에 오히려 인문학이 왜 다시 요청되는지를 빅테크 기업 리더들의 인식과 교육적 함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바탕으로 인문학의 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한 뒤,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확산이 학교 현장의 인문학 실천을 어떻게 새롭게 조직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원 인문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를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기능이 통합된 디지털 라키비움으로 해석하고, 교원 참여형 인문 플랫폼이 갖는 교육적·인문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통해 인문학 교육이 더 이상 주변적 교양 활동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을 인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핵심 실천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북교육의 사례가 지역 교육 행정 차원을 넘어, 교원의 독서 경험과 대화, 기록과 축적을 통해 집합적 인문 자산을 형성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읽힐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시대의 변화 속 빅테크는 인문학을 호출하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흔히 기술 중심 사회의 가속으로 이해되지만, 역설적으로 이 변화는 인간에 대한 이해, 가치 판단, 상상력, 해석 능력과 같은 인문학적 역량의 필요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기술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계산과 예측, 자동화와 최적화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어떤 선택이 교육적으로 정당한가, 기술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스스로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의 시대 변화는 인문학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의 새로운 소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문학의 제도적 위상은 오랫동안 약화되어 왔다. 대학 구조조정과 취업 중심의 교육 담론 속에서 인문학은 실용성이 낮은 학문, 직접적인 직업 역량과 거리가 있는 분야로 간주되며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처럼

제도교육의 장에서는 인문학의 축소가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산업 현장 특히 글로벌 기술기업의 리더십 담론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타난다.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이야말로 기술만으로는 혁신이 완성되지 않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기술이 탄생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Apple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이다. 그는 iPad 2 공개 행사에서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이 자유학예와 결합되고, 인문학과 결합될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며,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Apple의 정체성으로 제시하였다. 이 발언은 흔히 디자인의 중요성을 말하는 수준으로 소비되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기술 혁신의 경쟁력이 단지 성능과 효율,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경험과 감성, 서사와 의미의 조직 능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잡스의 언설은 인문학이 기술의 외부에서 기술을 비판하는 주변 담론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내부에서 그것의 방향과 형식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임을 시사한다.

Microsoft의 사티아 나델라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기술 중심 시대의 인간적 감수성을 강조해 왔다. 세계경제포럼 대담에서 그는 “The future of work is not just about technology and tools,” he said. It’s about new management practices and sensibilities to the workplace.(일의 미래는 단지 기술과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관리 방식과 직장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라고 말하며, 기술 발전이 곧바로 더 나은 조직과 사회를 보장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AI와 자동화의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공동체의 감각과 윤리적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즉 기술은 환경을 바꾸지만, 그 변화의 방향을 해석하고 공동의 질서로 조직하는 힘은 여전히 인간의 서사적·윤리적 역량에서 나온다.

다니엘라 아모데이 (Anthropic 공동창업자, President)	“Studying the humanities is going to be more important than ever.” “인문학 공부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AI systems are already quite good at many STEM tasks. What we will need people for is critical thinking,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and to interpret themselves and society.” “AI 시스템은 이미 많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과제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로 하게 될 것은 비판적 사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과 사회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Microsoft CEO)	“As AI takes over more of the technical and analytical work, empathy and EQ will become the core skills for the future.” “AI가 더 많은 기술적·분석적 업무를 맡게 될수록, 공감 능력과 감성 지수(EQ)가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지니 로메티 (전 IBM CEO)	“As generative AI becomes embedded in the workplace, there will be a premium on soft skills like collaboration, judgment, and critical thinking — the kinds of adaptability that come from what humans do best.” “생성형 AI가 일터에 본격 도입되면 협업, 판단, 비판적 사고와 같은 소프트 스킬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입니다. 이런 적응력은 학위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나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Morgan Chase CEO)	“My advice to people is: develop critical thinking, learn new technologies, grow your EQ, learn how to behave in meetings, how to communicate, how to write. Those soft skills will matter more in an AI world.”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EQ를 키우고, 회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글을 써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프트 스킬이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알렉스 카프 (Palantir CEO)	“AI will destroy a lot of humanities jobs. Even philosophy majors from elite universities will lose their edge unless they have additional skills.” “AI는 많은 인문학·문과 일자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심지어 명문대 철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도 추가적인 기술이 없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In the age of AI, we have to value again the kinds of work humans do with their hands and the roles that cannot be replaced.” “AI 시대에는 인간이 손으로 하는 일, 대체될 수 없는 역할의 가치를 다시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	--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역시 단지 코딩 능력이나 기기 활용 능력에만 머물 수 없으며, 기술 변화의 의미를 성찰하고 그것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인문학은 기술 이후의 보충물이 아니라 기술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문해력으로 다시 자리매김한다.

최근의 AI와 관련한 교육적 담론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정보의 진실성·맥락성·윤리성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방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적 추천, 자동 생성 콘텐츠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무엇을 아는가’만큼이나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가’가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술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계산 능력 그 자체라기보다, 의미를 판별하고 타자의 삶을 이해하며 공공적 판단을 구성할 수 있는 인문학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학교교육, 특히 교원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부상한다. 빅테크 경영자들의 발언은 인문학을 낭만적 교양으로 복권시키려는 선언이 아니라, 기술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와 해석 능력이 실질적 경쟁력이며 지속가능한 혁신의 조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학교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교육적으로 번역해야 하는 장이며, 교사는 그 번역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가 된다. 교원에게 필요한 인문학은 단순한 독서 이력의 축적이나 고전 지식의 습득을 넘어,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과 교육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교육 현장에서 인문학은 지식 편성의 한 분과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조율하는 기반이 된다. 기술은 수업을 효율화할 수 있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떤 학생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지, 배움이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결국 교육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원 인문학은 과거 회귀적 교양론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 데이터와 가치, 혁신과 성찰을 연결하는 교육적 실천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은 시대 변화에 대한 교육적 응답으로 읽을 수 있다. 대학 제도와 노동시장에서 인문학의 외형적 위상은 축소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원의 인문학적 통찰은 더욱 중요한 교육 역량이 되고 있다. 경북 교육이 교원의 독서, 대화, 기록, 성찰을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기술사회 속 공교육의 인간 중심성을 재정립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결국 오늘의 빅테크가 인문학을 호출한다는 말은, 기술 기업이 인문학을 장식적 수사로 차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이 세계를 바꾸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의미를 조직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징후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교원 인문학은 선택적 교양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을 인간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새롭게 위치시켜야 한다.

III. 인문학 장이 변화한다: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교육

인문학의 위기와 재구성 문제를 단순히 학문 선호도의 변화나 교육과정의 조정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 인문학의 변화는 어떤 지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누가 그 지식을 생산하며, 어떤 제도와 매체를 통해 유통하고 권위를 획득하는가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르디외의 장(field)

이론은 동시대 인문학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부르디외에게 장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제도적 범주가 아니라, 특정한 규칙과 자본, 위계와 경쟁 논리가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의 공간이다. 각 장은 독자적인 작동 원리를 가지며, 그 안에서 행위자들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경쟁과 협력, 배제와 승인, 재생산과 변형의 과정을 반복한다. 따라서 어떤 학문 영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내용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생산·평가·유통되는 장의 구조와 그 안에서 작동하는 힘의 관계를 함께 읽는 일이다.

이 관점에서 인문학은 고정된 학문 범주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제도, 실천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장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장은 대학과 학술제도, 연구소, 학회, 출판계, 문화예술 영역, 교육 현장 등으로 분화되어 구성되어 왔다. 이들 장은 서로 연동되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기준과 권위를 통해 인문학적 가치와 정통성을 산출한다. 예컨대 대학과 학술연구의 장에서는 이론적 정교함, 학술지 게재, 전공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반면, 출판과 교양 담론의 장에서는 대중적 전달력과 사회적 파급력, 담론 형성 능력이 보다 큰 상징자본으로 기능한다. 학교 교육의 장에서는 다시 교육과정 적합성, 교수학습 가능성, 학생 발달 및 성장과의 연계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한다.

국내 인문학의 장 역시 이러한 다층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한편으로 국문학, 역사학, 철학, 한문학, 종교학 등 분과 학문은 대학과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연구 전통을 축적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 출판과 미디어, 지역문화 운동, 평생교육, 공공도서관과 문화기관은 인문학을 공공적 담론과 실천의 형태로 확장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문학은 점차 세분화된 전문성의 논리에 따라 분절되기도 하였으며, 대학 중심의 제도권 인문학과 교육 현장 및 시민사회 인문학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와 위계가 형성되어 왔다. 다시 말해 인문학의 장은 풍부해졌지만, 동시에 전문화와 분절화, 제도화의 심화 속에서 상호소통의 통로를 좁혀 온 측면도 있었다.

현대 인문학은 전문화의 함정 속에서 교육과 연구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협업·융합을 통해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진단은 곧 인문학 장의 내부 구조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19세기에 들어와) 지식이 다양한 학문으로 분화하고 대학 내의 학문 분과로 제도화되었다. 통제와 제약의 뜻을 지닌 군대 용어에서 유래한 ‘discipline’(학과목)이라는 단어는 대학 내에서 엄격하게 통제된 학문 분야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학의 학과목으로 지식을 관리하는 모델은 여러 식민지에 수출되었고, 곳곳에서 빠르게 표준으로 정착했다. (……) 교과 과정을 과목별로 분화해 서로 연계시키지 않고 교육했고, 마치 공장 생산라인에 놓인 제품을 취급하듯이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주입했다. ‘교과목’으로 포장된 파편화된 지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찰하도록 학생을 격려하는 일은 없었다. (……) 20세기에 접어들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기관(학교, 정부, 기업)에서 분업과 분과를 채택해 경계가 엄격해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초전문화 문화가 새로 조성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누구나 당연시하는 규범으로 정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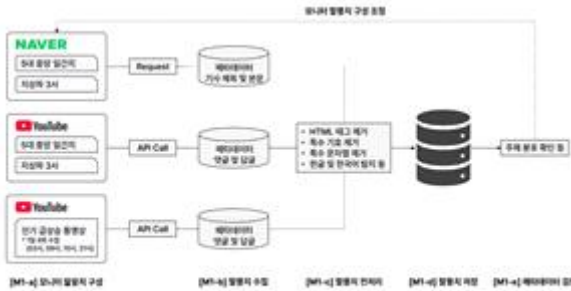
- 와카스 아메드, 이주만 역, 『폴리매스』 Polymath, 로크미디어(주), 2020. pp. 154~158>

즉 오늘날 인문학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도구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의 작동 규칙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연구자는 더 이상 단독 저술과 폐쇄적 전공 언어만으로 권위를 확보할 수 없으며, 데이터 구축, 공동 연구, 시각화, 아카이브 설계,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같은 새로운 실천이 인문학적 성과의 일부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디지털인문학이 놓여 있다.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KADH)는 디지털인문학을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매개로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디지털인문학이 단순히 인문학 자료를 전산화하거나 정보기술을 보조도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문학의 질문 방식, 자료 조직 방식, 해석 방식, 지식 공유 방식을 함께 변형시키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디지털인문학은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트워크 분석, 공간정보 시각화, 디지털 아카이빙,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인문학의 연구 범위와 형식을 확장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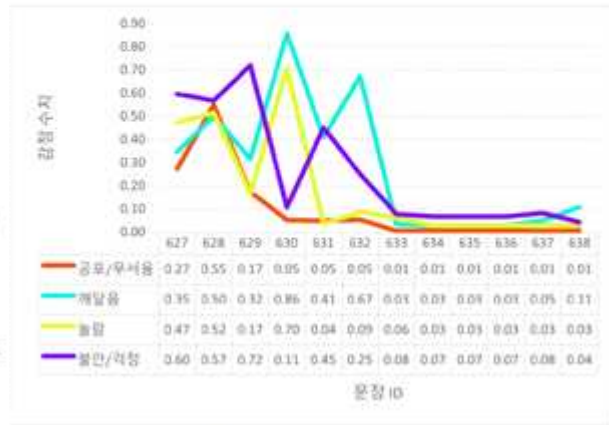
4-3-2. 「날개」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감각·감정 패턴

「날개」 역시 「집행이행死」와 마찬가지로 서사의 마지막 대목에서 에피파니가 관찰된다. 다섯 번째 외출(「날개」, 113:582)을 감행한 '나'는 몇 시간 후 자신이 미쓰코시 욕상에 있는 것(「날개」, 113:591)을 깨닫는다. 113:627부터 나타나는 후반부의 에피파니 패턴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모니터 발동처 수집 과정

출처: 안진산(2026)



<그림 19> 이상, 「날개」 끝 부분에 나타난 에피파니 순간의 감정 흐름 그래프

출처: 지해인(2024)

이러한 확장은 곧 인문학 장의 재편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권위는 깊이 읽기, 개별 텍스트 해석, 전공 분과 내부의 인용과 검증 체계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면, 디지털인문학은 여기에 협업, 공유, 데이터 문해력, 시각화, 프로그래밍 감수성, 플랫폼 기반의 지식 생산이라는 새로운 자본을 추가한다. 다시 말해 인문학 장 내부에서 유효한 자본의 종류와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뿐 아니라 기술자, 기록관리자, 디자이너, 교사, 시민 참여자 등 다양한 행위자가 인문학 장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하며, 장의 경계 역시 이전보다 유동적으로 재조직된다.

이 변화는 대학 교육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여러 대학은 디지털인문학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의 융합 전공과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인문학과 디지털 기술의 접점을 제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디지털인문학·리터러시 융합전공은 인문학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은 디지털 한국어문학 과정을 통해 AI 기반 언어 분석, 빅데이터 언어학, 디지털 한국어문학 연구 방법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의 디지털인문학 프로그램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와 문제해결 역량,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인문학이 더 이상 일부 연구자의 실험적 방법론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교육의 장 안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디지털인문학 교육이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데이터를 읽고 다루는 능력,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을 구조화하고 표현하는 능력, 협업과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기술이 인간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함께 포함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코딩 교육의 변형판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적 사고를 새롭게 수행하기 위한 문해력 교육이다. 따라서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인문학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의 재구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현장의 인문학 실천에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 학교 인문학이 독서교육, 고전 읽기, 문학 감상, 토론 수업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디지털 환경 속 자료 탐색, 기록의 축적, 공동 저작, 온라인 아카이빙, 시각화와 공유, 플랫폼 기반 대화와 성찰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문학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적 질문을 오늘의 매체 환경과 교육 현실 속에서 새롭게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학교에서의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전통적 인문학 소양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합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의미를 생산하고 성찰하는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교원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인문학 장의 재구성에 참여하는 실천적 행위자이다. 교사는 기존 인문학 지

식을 선택·번역·재구성할 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록과 대화의 구조를 설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은 고전 독서의 장려를 넘어, 변화하는 인문학 장 속에서 교사가 어떤 자본을 획득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오늘의 교원 인문학은 인문학의 주변적 수혜자가 아니라, 새롭게 변모하는 인문학 장의 핵심 행위자를 길러내는 교육적 실천이어야 한다.

결국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등장은 인문학의 위기를 증명하는 징후가 아니라, 인문학 장이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문학은 지금 새로운 행위자, 새로운 자본,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는 재편의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교와 교원은 인문학 장의 외곽이 아니라, 인문학의 새로운 공공성을 형성하는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위치 지워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교원 인문 인사이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디지털 전환 시대 인문학 교육의 실천적 모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IV. 인문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경북 교육: 교원 인문 인사이트의 인문학적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인문학은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 오히려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인문학의 확산을 통해 그 장의 구조와 실천 방식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문학이 더 이상 대학 중심의 폐쇄적 제도 속에 머무를 수 없으며, 교육 현장과 디지털 플랫폼, 기록과 공유의 구조 속에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단순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변화하는 인문학 장에 대한 공교육 차원의 응답이자 교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문학 실천 모델로 해석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업무 체계에서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인성인문학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 지원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업무에는 인문학 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디지털자료실 지원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일회성 강연이나 독서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자료의 축적과 관리, 공유와 확산이라는 구조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6년 운영 계획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감응-사유-성찰-실천’의 4단계 성장 로드맵에 따라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인문학 경험이 단순 수용을 넘어 해석과 성찰, 실천의 단계로 확장되도록 설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징은 ‘교원 인문 인사이트’를 기존의 독서 관련 연수나 교양 강좌 등과 구분하게 한다. 전통적인 교원 인문학 프로그램이 특정 강연의 청취나 권장 도서 독서, 독서 교육 프로그램 사례 공유 등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는 교원이 책을 읽고,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대화하며, 그 기록이 다시 플랫폼에 축적되는 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원이 더 이상 인문학 콘텐츠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인문학적 의미를 생산하고 기록하는 참여자라는 점이다. 즉 이 프로그램은 교원 개인의 교양 증진을 넘어, 교사 집단이 함께 공적 인문 자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읽힐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고는 ‘교원 인문 인사이트’를 디지털 라키비움(Digital Larchiveum)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념으로, 자료의 수집과 제공, 기록의 보존과 관리, 기억과 의미의 전시를 통합하는 공간 모델로 제시되어 왔다.(K. Raya, 2008) 국내 연구에서도 라키비움은 자료의 디지털화를 전제로 보존, 연구, 전시, 교육 기능을 결합하는 구조로 이해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 저장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기억의 조직 원리로 논의되어 왔다.(조승훈, 2025; 조수연, 2024 등)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면, 경북의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 기반의 참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라키비움’으로 명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적 성격을 지닌다. 교원들이 인문학과 인문도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독서 경험과 추천, 해석과 의견을 나누는 구조는 책과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공유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열람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교원 개개인의 독서 경험은 서로의 수업, 교육철학, 생활지도 경험과 접촉되면서 새로운 교육적 의미망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인문학적 독서를 개인 내면의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적 지식 교류의 과정으로 전환시킨다. 이 점에서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교원 공동체 내부에 형성되는 디지털인문도서관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기록관의 성격을 가진다. 교원들이 남기는 서평, 소감, 질문, 토론의 흔적, 추천 목록, 참여 이력 등은 단순한 게시물의 집합이 아니라 교육적 실천의 기록물로 볼 수 있다. 인문학 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디지털 자료실 지원은 이러한 기록의 축적과 관리가 제도적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록관의 핵심은 단순 저장기 아니라 맥락화된 축적에 있다. 같은 의미에서 교원 인문 인사이트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경북 교원들이 특정 시기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고민하며, 어떤 언어로 교육을 성찰했는지를 보여주는 집합적 교육 기록이 된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적 성격을 갖는다. 박물관은 사물을 단순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과 의미를 구성하고 전시하는 공간이다. 교원 인문 인사이트 역시 해마다 축적되는 독서와 대화, 성찰의 흔적을 통해 경북교육의 인문학적 기억을 저장한다. 개별 교원의 글과 참여는 순간적 경험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다시 읽히며 공유될 때 하나의 세대적 교육 기억이 된다. 따라서 이 플랫폼은 단순한 온라인 게시판이 아니라, 경북교육이 어떤 인문학적 질문을 품어 왔는지 보여주는 디지털 기억의 박물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교원 인문 인사이트’를 디지털 라키비움으로 읽는 것은 단지 비유적 명명이 아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지닌 구조적 성격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는 해석의 틀이다. 교원의 독서 경험이 도서관처럼 공유되고, 그 기록이 아카이브처럼 축적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육 공동체의 기억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소비가 아니라 인문학의 사회적 생산과 보존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즉 경북교육은 교원 인문학을 개인적 소양 함양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공공적 지식 자산으로 조직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 인문 인사이트’의 인문학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교원을 인문학의 수혜자가 아니라 행위자로 재위치시킨다. 앞서 논의한 부르디외의 장 이론에 따르면 장은 특정한 자본과 규칙을 둘러싼 실천의 공간인데,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교원이 독서와 대화, 기록을 통해 인문학 장의 새로운 참여 주체로 등장하도록 만든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을 인문학 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적 실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인문학이 대학과 학회 안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성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된다는 점을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인문학의 교육적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독서, 기록, 공유, 데이터 축적은 인문학의 디지털 전환이 연구자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원 공동체 안에서도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지역 교육 차원에서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디지털 인문학과 플랫폼 기반 교육 혁신은 종종 수도권 대형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중심의 담론으로 제시되지만, 경북의 사례는 지역 교육청이 주도하여 교원 인문학의 공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이 단순히 중앙의 정책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인문학과 디지털 전환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험하고 확산할 수 있는 주체임을 뜻한다. 따라서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경북이라는 지역적 맥락 속에서 공교육의 인문학적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한 권의 책을 읽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의미는 개인의 독서 경험을 훨씬 넘어선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대화를 낳고, 그 대화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으며, 그 기록은 공동체의 기억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 한 사람의 변화는 곧 경북교육 전체의 인문학적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경북교육은 인문학의 쇠퇴를 말하는 시대에 오히려 인문학의 새로운 제도적 형식과 공공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교원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을 넘어, 디지털 라키비움으로서 지식의 공유, 기록의 축적, 기억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인문학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곧 경북교육이 인문학의 회복이 아니라 인문학의 혁신을 실천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디지털 전환 시대 공교육이 인간 중심의 교육철학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도적 사례가 된다.

V. 결론

본고는 기술 중심 사회의 심화 속에서 인문학이 쇠퇴하고 있다는 통념을 재검토하고, 오히려 오늘의 시대 변화가 인문학의 새로운 요청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빅테크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해석과 판단의 역량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는 인문학이 기술 발전의 외부에 놓인 장식적 교양이 아니라, 기술사회의 방향을 성찰하고 인간적 가치를 조직하는 핵심 역량임을 시사한다.

이어 본고는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통해 인문학을 고정된 학문 분과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자본, 제도와 규칙이 작동하는 사회적 장으로 파악하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인문학의 변화는 단순한 위기나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인문학의 부상과 함께 지식 생산과 유통, 권위 형성의 방식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인문학이 디지털 기술과의 접촉을 통해 협업, 데이터 문해력, 기록, 시각화, 플랫폼 기반 공유라는 새로운 실천 양식을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원 인문 인사이트’를 변화하는 인문학 장에 대한 교육적 응답이자, 공교육 기반의 디지털 인문학 실천 모델로 해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방향적 연수를 넘어 교원의 독서, 대화, 성찰, 실천을 온라인 플랫폼 위에서 축적하고 공유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교사를 인문학의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기록자로 재위치시키며, 학교 현장을 인문학 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라키비움의 관점을 적용하여 ‘교원 인문 인사이트’를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기능이 통합된 디지털 라키비움으로 해석하였다. 교원들이 인문 도서와 인문학적 성찰을 공유하는 구조는 도서관의 기능을, 그러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관리되는 구조는 아카이브의 기능을,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북 교육의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구조는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해석은 교원 인문 인사이트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북 교육의 인문학적 기억을 생산·보존·전승하는 공공 플랫폼임을 드러낸다.

결국 교원 인문 인사이트라는 경북 교육의 혁신 사례는 인문학의 회복을 넘어 인문학의 혁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권의 책은 한 번의 대화로 이어지고, 그 대화는 한 사람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며, 그러한 변화의 흔적은 다시 공동체의 기억과 교육적 자산으로 축적된다. 바로 이 점에서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디지털 전환 시대 공교육이 인간 중심의 교육철학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교원 인문학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제 참여 양상, 축적 데이터의 유형과 의미, 교원의 전문성 변화와 학교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교육은 더욱 인간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그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인문학은 다시 학교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경북 교육의 이 사례는 그 가능성을 가장 앞서 실험하고 있는 혁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뉴스스페이스(2026. 2. 8.) "[빅테크칼럼] 엔트로픽 창업자 "인문학,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감성지능·소프트 스킬에 쏠리는 글로벌 CEO 시선",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12433>
- 경북in신문, 유경상 기자(2025. 12. 19.) "영똥한 '교명', 국립경국대학교로 바꾸더니, 이젠 '인문·문화학' 말살까지 나서나!", <https://www.kb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10>
- 교수신문 2025. 11. 13. 임효진 기자 "내년 R&D예산 19.3% 늘었지만 인문사회는 0.93%로 줄어"
- 박준형(2026), 『AI와 문학의 장』,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준형(2026), 『AI와 토폠피리아』,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준형(2026), 『디지털인문학과 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박준형(2026), 한국영화에서 표상된 시(詩)의 문화자본적 속성 연구, 문학과 영상 27(1), 105-133.
- 박준형(2025), 현대문학 교육에서 디지털 소양의 구현 방향, 우리말글 108, 143-181.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역음(2024),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 사회평론아카데미.
- 안진산(2026), 실시간 신어 추출 파이프라인의 설계와 검증, 한글 87(1), 283-314.
- 오마이뉴스 2026. 3. 20. 채희태 기자 "대학생들의 섬뜩한 '장례식'... 한국의 대학은 지금 무얼 하는가"
- 와카스 아메드, 이주만 역, 『폴리매스』 Polymath, 로크미디어(주), 2020.
- 조승훈·김수란(2025),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2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45(1), 175-178.
- 조수연(2024), 학교도서관 라키비움 전략 및 교육모형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3), 35-64.
- 지해인(2024), 디지털 감각·감정 분석을 통한 이상 문학의 에피파니 연구, 상허학보 72, 753-827.
- Bourdieu, P.(198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Poetics, 12(4-5), pp.311~356.
- Horace Dediu(2011. 8. 25.), "Steve Jobs's Ultimate Lesson for Compan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 Sector.(<https://hbr.org/2011/08/steve-jobss-ultimate-lesson-fo>)
- Kuzyk, Raya(2008). "LJ Talks to Megan Winget,WhoStudiesPreservation of Online Games" Library Journal.
- MarthaC. Nussbau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2010)
- 세계경제포럼 공식 웹사이트(2018. 1. 24.)
<https://www.weforum.org/stories/2018/01/google-ceo-ai-will-be-bigger-than-electricity-or-fire/>
-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공식 웹페이지, <https://www.kadh.org/>
- 경북 교원 인문 인사이트 공식 웹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2026insight/home>